

7. 한글 가로 풀어쓰기 주장

(1) 개화기의 풀어쓰기 주장

한글은 훈민정음의 이론에서부터 가로 풀어쓰기에 알맞도록 된 것인데, 오직 당시의 한학자들의 금과옥조같이 여기던 글자의 3운 조직 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하여, 세종 대왕이 받침 차리기(받침 설정)를 그 무마책으로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전후한 개화의 물결은, 우리가 우리의 글인 한글의 제 모습 찾기로 돌아가, 한글은 모아쓰기 할 것이 아니라, 가로 풀어쓰기 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타나기 비롯하였다. 그러한 가로 풀어쓰기는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유길준의 '서유 견문(西遊見聞)'과 예수교(신·구교) 계통의 선교사들에 자극을 받아 더욱 관심이 깊어졌다. 때마침 배재 학당에서 교육을 받고 난 주시경이 이를 본격적으로 계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그 후계 학자들이 체계화시켜서 한글 학회를 본거지로 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가로 풀어쓰기를 주장한 첫 문헌은 주시경이 붓으로 쓴 '말의 소리'(1914. 4. 13.)인데, 그 책의 끄트머리에 '우리글의 가로 쓰는 익힘'이란 제목을 달고서, 가로 풀어쓰기의 보기를 보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인가 한다.<주: 김윤경 '새로 지은 국어학사' 1963. 3. 15. P.147./ '한글' 제13권 2호(통권 104호, 1948. 6. 20.) P.24.>

(2) 한글 학회의 풀어쓰기 주장

주시경의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1921년 12월 3일에 조선어 연구회(→조선어 학회→한글 학회)를 창립하고, 한글 강습이나 강연회 또는 좌담회 등 기회를 때마다, 가로 풀어쓰기를 계몽하였다. 그것은 광복 후에 더 열심이었는데, 문헌에 나타난 기록만 더듬으면 다음과 같다.

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사'<주: '한글사'는 조선어 학회의 출판부가 출판사와 같은 격식을 갖추고 학회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여 독립 재산 운영한 공식 기구의 이름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주: '한글' 제4권 1호(1936. 12.).>

한글 가로쓰기(橫綴)는 필요한가?

만일 필요하다면, 그 자체(字體)는 어떻게 하며,

서법(書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연구하신 것이 계시거든 본사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어 학회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하여, 각기 가로 풀어쓰기에 대한 시안을 모집하였더니, 이상춘·최현배·이극로·정열모 등 여럿의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공통점은 취하고 각기 다른 점은 가려서 알기 쉽도록, 송기주에게 글씨 제도를 시켜, 1937년 11월 28일 한글 학회 임시총회에서, 장래에 점차로 수정할 셈치고, 우선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자형은 대체로 훈민 정음의 원형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학회의 발간물에 되도록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그 예가 ‘가려 뽑은 조선 표준말 모음’의 뒤에 붙은 ‘찾아내기(색인)’에서의 쓰임이다.

이 표준말 모음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이어서 사정한 것인데, 1936년 10월 28일(490회 가갸날)에 공식으로 발표하였고, 책으로는 1936년 10월 28일에 조선 교학 도서 주식회사에 박아서, 조선어 학회 이름으로 펴냈다. 이 책의 뒤에 있는 찾아내기는 가로 풀어쓰기 한 것으로 찾도록 마련하였다.

한글 학회의 숙원의 하나는 바로 이 한글의 가로 풀어쓰기라 하겠는데, 그 증거로 한글 학회의 기관지인 ‘한글’ 잡지의 제호 ‘한글’이란 것 위에 ‘가로 풀어쓰기’한 ‘ㅎ ㅏ ㄴ ㄱ ㅡ ㄹ’이 있음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풀어쓰기가 ‘한글’지의 제5권 제2호까지와, 제5권 제2호로부터 제6권 제11호까지에 나타나 있다. 이 풀어쓰기 덧제호가 있다가 없다가 한 것은 그때의 편집자의 가로 풀어쓰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좌우하였으나, 최근에는 제목의 2중이란 체제상의 모순 때문에 가로 풀어쓰기 제호는, 안장(내제)에만 두고 있다.

(3) 가로 풀어쓰기의 여러 이론

1) 최현배의 이론

최현배는 ‘한글’ 제5권 제2호(1937. 2. 1.) 1~7쪽에 ‘한글 가로 쓰기 이론과 실제(1)’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이 실렸다.

내가 한글 가로쓰기를 주장하기는 15년 전의 1922년 여름이었고, 그 때 동아 일보에 연재한 낡은 원고에다 보태고 집고서, 이론 근거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자 한다……. (중간 줄임)……

한글도 서양의 알파벳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가로글씨를 주장한다……. (아래 줄임)

이 ‘가로글씨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리나는 이치와 일치하고,
- ② 쓰기와 박기(인쇄하기)와 읽기가 쉽고,
- ③ 맞춤법을 매우 간편하게 줄이며,
- ④ 온 세계의 수백 종 글자가 가로로 된 자연적인 점이다.

다시, ‘한글’ 제5권 제3호(1937. 3. 1.) 1~8쪽에 실린 ‘가로 글씨의 이론과 실제 (2)에서’ 가로글씨의 원고와 가로쓰기(필기체)가 소개되어 있다.

또, ‘한글’ 제5권 제4호(1937. 4. 1.) 12~15쪽에서는 위의 글의 계속인데, ‘가로글씨의 마침법’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고, 다음의 제5권 제5호(1937. 5. 1.) 1~8쪽에는 위의 글이 계속인데, ‘가로 글씨와 월점 치기’는 진보적 체계의 조리 있음과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없다 하겠다.

2) 김윤경의 여러 이론 소개

김윤경은 ‘한글’ 제5권 제2호(1937. 2. 1.) 8~15쪽에 ‘한글 가로쓰기의 사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주시경, 김두봉, 이필수, 김석곤, 최현배, 송기주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그 요지를 소개하였다.

가) 주시경 이론의 요지

‘말의 소리’(1916. 4. 13.)의 부록에 그 보기가 있고, 그가 발행한 한글 강습회의 졸업 증서와 ‘새빛’(신문관 발행의 잡지) 등에 가로글씨를 썼으니, 대체로 한글의 원형을 살렸다.

- ① (첫소리)와 (아래 아)는 안 쓰기로 하고,
- ② ‘ㅣ’를 로마자 ‘I’(큰 글자)와 같이 하였고,
- ③ ‘ㅡ’를 U(로마자 ‘유’와 같음)와 같이 하였고,
- ④ 끌어옴표(인용 부호)와 구별지었고,
- ⑤ 겹씨(합성어)를 이루는 낱말 사이애다가 작은 V(로마자 ‘뷔’)로써 두 말이 하나로 얽힘을 나타내었다.

나) 김두봉 이론의 요지

‘김두봉 조선 말본’(1918. 4. 13.)의 ‘부록’ 중에 ‘좋은 글’이란 이름으로 활자체와 필기체 등으로 자세한 연구가 있다. 그 이론은 주시경의 제자답게 한글을 로마자와 같이 왼 쪽에서 바른 쪽으로 풀어서 쓰자는 것인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① ‘ㅇ’과 ‘·’(아래 아)와 ‘ㅡ’와 ‘ㅣ’는 주시경과 같은 주장이고,
- ② 거듭 홀소리들의 몸을 좁게 쓰고,
- ③ 소리의 높이와 길이는 그 홀소리의 오른 쪽 어깨에 표를 하고,
- ④ 겹씨의 사이와 글줄 끝에서 한 낱말이 토막 나는 때에는 짧은 ‘ㅡ’표를 하였고,
- ⑤ 으뜸 씨와 감토(자격범) 사이에는 ‘·’표를 하였고,
- ⑥ 준말은 오른 쪽 발옆에 ‘·’표를 하였고,
- ⑦ 말이 거듭되는 때는 쌍운점(:)으로 나타냈다. 보기; 단단한→ㄷ ㅏ ㄴ : 하 ㄴ.
- ⑧ 따옴말에는 “ ”를 쓰고,
- ⑨ 위의 말을 풀이할 때는 () 속에 넣자고 하였다.

다) 이필수 이론의 요지

‘?음 문?’에다 소초와 대초의 초서체를 발표하였다.

라) 김석근 이론의 요지

동아 일보(1932. 7. 20.)에 실렸던 ‘한글 가로 쓰기’라는 논문의 요지를 소개했는데, 다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낱말을 표준삼아 띄어 쓰니까 읽기 쉽고, 뜻 분간이 잘 되며,
- ② 소리나는 대로 적으니 소리결과 맞으며,
- ③ 왼 쪽에서 바른 쪽으로 적으니, 쓰기와 읽기가 쉽고,
- ④ 활자가 적어도 되니까, 박기(인쇄하기)가 쉽고,
- ⑤ 소리 값이 없는 ‘ㅇ’은 쓰지 않으니, 쓸데없는 어수선히 없고,
- ⑥ 한문자는 저절로 안 쓰게 되니까, ‘올바로 우리말이 발달된다.’고 하면서,
- ⑦ 활자체와 필기체를 각각 큰 글자 작은 글자로 갈랐다.

마) 최현배 이론의 요지

조선 일보(1926. 11. 18~19)에 1926년의 ‘가갸날’의 기념 강연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그 큰 갈래는

- ① 가로쓰기의 여러 가지 이론과
- ② 큰 글자와 작은 글자의 흘림체(초서체) 글씨꼴로 되어 있다.

3) 김병호의 이론

김병호가 ‘한글’ 제6권 제1호(1938. 3. 1.)에 발표한 ‘한글 가로글씨 사안(私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홀소리의 내리 획은 오른 쪽으로 그 머리가 기울어진 것으로 하고서, ‘ㅏ’와 ‘ㅑ’ ‘ㅓ’와 ‘ㅕ’, ‘ㅗ’와 ‘ㅛ’, ‘ㅜ’와 ‘ㅠ’가 서로 짝 모양새를 지녔고,
- ② 밝은 홀소리는 위로 솟게 하였고, 어두운 홀소리는 아래로 처지게 하였으며,
- ③ ‘ㅡ’는 ‘V’(뷔이)로 하였다.

이어서 ‘한글’ 제6권 제8호(1938. 9. 1.)에 발표한 ‘가로글씨 대자(大字)에 대하여’란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홀소리는 10자가 모두 큰 글자를 따로 가지고,
- ② 닿소리는 ‘ㅈ, ㅎ’에만 크게 그대로 적는다.
- ③ 홀로 이름씨의 첫 홀소리는 모두 큰 글자로 적고, 닿소리는 몸만 크게 적는다고 하며, 보기 글을 내세우고 있다.

4) 심상설의 이론

심상설이 ‘한글’ 제6권 제3호(1938. 3. 1.)에 발표한 ‘한글 가로글씨 흘림체’에서 가로쓰기의 흘림체의 모양새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닿소리는
 - ㉠ 원형과 비슷한 것은 ‘ㄱ, ㅇ, ㅋ’ 뿐이고,
 - ㉡ ‘ㄷ’은 ‘Z’,
 - ㉢ ‘ㄹ’은 가로 높히고,
 - ㉣ ‘ㅁ’은 ‘U’,
 - ㉤ ‘ㅂ’은 ‘A’,
 - ㉥ ‘ㅅ, ㅈ, ㅊ’은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고,
 - ㉦ 그 밖은 일반적인 필기체로 하였으며,
- ② 홀소리는 완전히 모양새를 변경시켜서,
 - ㉧ ‘ㅏ, ㅑ, ㅓ, ㅕ’는 ‘ㅏ, ㅑ, ㅓ, ㅕ’와 같은 꼴로 변조시켰으나, 점을 하나씩 찍음으로써 구별하였고,
 - ㉨ ‘ㅡ’는 ‘V’로 하였다.

5) 청풍생(淸風生)의 이론

청풍생이라는 익명의 필자는 ‘한글’ 제6권 제4호(1938. 4. 1.)에 ‘로마자안(羅馬字案)에 대하여’에서 로마자로 하는 필요는 문화 체계의 국제성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를

- ① 언어 생활의 국제성과 ② 한자 폐지의 필요
- 에 두고 있고, 한글과 로마자를 다음과 같이 맞대었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ja	e	je	o	jo	u	ju	w	i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ōa	ūe	æ	é	ó	uj	wj	óae	ō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g	n	d	L	m	b	s	g	z	c	k	t	p	h
ㄱ	ㄷ	ㅃ	ㅆ	ㅉ									
gg	dd	bb	ss	zz									

6) 심일의 이론

심일은 ‘한글’ 제6권 제4호(1938. 4. 1.)에서 ‘내가 쓰는 한글 가로글씨 흘림체’에서 비교적 세련된 글씨를 보였는데, 그 자형에 대한 해설이 자상히 있으며, 홀로 이름씨의 표현에 대한 소견까지 적혀 있는 매우 진보된 글이다.

7) 조병희의 이론

‘한글’ 제11권 제2호(1946. 5. 1.)에 조병희는 ‘한글의 장래’란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의 요지는; “우리 글자의 값과 힘을 완전히 나타나게 하려면, 가로 풀어서 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 효과로서

- ① 배열 차례가 일정해지고,
- ② 글자 수가 적어지므로(날내가 날자로 되므로),
- ③ 글자 배우는 노력이 덜게 되고,
- ④ 읽기 능률이 오르고,
- ⑤ 낱말이 각각 잘 눈뚫어서, 보아 나면 매우 쉬워진다.
- ⑥ 활자 수가 적어지니, 인쇄 능률이 수십 갑절 빨라지니, 문화 발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 ⑦ 나아가서 흘림체를 만들면 필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으며,
- ⑧ 활자체를 큰 박음 글자와 작은 박음 글자로 갈라, 크고 작은 글자를 내세웠고,
- ⑨ 흘림체에도 그리하였는데, 인쇄 체는 글자꼴의 변화는 없으나, 흘림체는 로마자를 본떠 있다.

8) 박창해의 이론

‘한글’ 제11권 제3호(1946. 6. 7.)에 발표한 박창해의 ‘가로글씨에 대하여’의 요지는 다음과 같거니와 한글의 쓰임새(찾기 조사)의 통계 숫자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우리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점 몇 가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① 닿소리와 홀소리는 그 소리 값나는 차례대로 가로 적어야 한다. 우리글은 세계서 으뜸가는데 소리대로 적지 않음은 큰 결점이다. 그러니 ‘가 가 거 거’ 따위의 닿소리를 왼쪽에, ‘고 교 구 규’는 뒤에 적는 것은 못 마땅하다.

닿소리 다음에 가로쓰기는 홀소리(ㅏ ㅑ ㅓ ㅕ ㅣ ㅞ ㅟ)는 31%(전체의 ⅔), 닿소리 다음에 세로 쓰는 홀소리(ㅓ ㅕ ㅗ ㅛ ㅡ)는 16%(전체의 ⅓)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글자는 가로 쓰는 것이 더 많다.

② 낱말은 낱덩이로 적어야 한다. 곧, ‘어머니’는 세 덩이로 되었으니, 한 낱말로서의 뜻이 흐려진다.

③ 보기에 편하게 적어야 한다. 눈이 가로로 열려 있고, 아래위를 보는 것 보다 가로쓰기로 써야 한다.

④ 쓰기에 편해야 한다. 우리의 팔꿈치의 움직임이 세로보다 가로 움직임이 쉽다.

⑤ 가로 글로 박으면 가장 과학적이다. 세계의 글자에는 소리나지 않는 글자도 넣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소리내지만, 우리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고 또 읽는다.

⑥ 전체의 10%나 되는 소리나지 않는 ‘ㅇ’은 털어 버릴 수 있다.

⑦ 가로글씨에는, 어렵다는 반침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가로쓰기는 우리 생활에서 한자를 안 쓰게 된 것이니, 문화와 과학은 쉽게 발달될 것이고, 행복이 촉진된다.

라고 하였고,

9) 김진억의 이론

김진억이 ‘한글’ 제12권 제4호(통권 제102호, 1947. 10. 15.) 31~33쪽에 ‘한글 횡철상(橫綴上) 해결해야 할 세 문제’에서 지적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둘 이상의 자모로써 단모음과 중모음의 표기법의 경우에

① ‘애’와 ‘아이’, ‘어이’와 ‘에’, ‘외’와 ‘오이’, ‘와’와 ‘오아’, ‘위’와 ‘우어’, ‘위’와 ‘우이’, ‘의’와 ‘으이’ 따위는 ‘딴 이’는 ‘여늬 이’를 구별짓고,

② ‘짧은 오·우·ㅓ’와 여늬 ‘오·우·으’를 구별짓는다.

위와 같이 하면, 해결되는 것이므로, ‘딴 이’, ‘짧은 오, 우, ㅓ’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미관상, 표기상, 발음상 검토할 점까지 제시하였다.

나) 씨가 겹해질 때(품사 합성상)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에서 소리가 변하는 것과 사잇소리의 표기법에 관해서도 소리의 닳음(치 닳음과 내리 닳음)과 된소리 거부법 등 해결 방안으로는 붙임표(접합부 ‘-’), 올림표(억양부 ‘ˊ’), 띄어쓰기 등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한글’ 제13권 제2호(통권 제104호, 1948. 6. 20.) 24~28쪽의 ‘가로쓰기의 사적 고찰과 시안’(이것은 조선어 학회 1947년 11월의 월례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 4. 13.) 끝장의 ‘우리글의 가로 쓰는 힘’에는 설명이 없으나, 종래의 낱내 식으로 쓸 때의 “ㅇ” 첫소리는 소리가 없다.”의 본문 풀이와 같이, 이 보기에서는 첫소리 ‘ㅇ’은 빼고 없다.

그리고, ‘판 이’와 ‘여니 이’를, ‘짧은 오·우·으’와 ‘여니 오·우·으’를 구별짓지 않았다.

② 김두봉의 ‘집더 조선 말본’(1923년)의 붙임 첫소리 ㅇ을 쓰지 않을 까닭, ‘판 이’는 겹진 글자로 함으로써 ‘여니 홀소리’와의 구별은 지었으나, ㅏ·ㅑ·ㅓ를 주시경과 같이 거듭 홀소리로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최현배는 ‘글자 혁명’ 이전에 조선 일보에서 ‘짧은 오, 우, ㅓ, ㅑ’는 그 위에다 반달 표를 붙여서, ‘여니 ㅏ, ㅑ, ㅓ, ㅑ’와 구별지었다.

④ 조선어 학회 임시 총회(1936년 11월)에서 가로쓰기 임시 안을 마련한 것의 음성학적 특색은 다음과 같다.

- ㉠ 홀소리 체를 몸줄(본체선)에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두어서, 구별지었고,
- ㉡ 최현배 식과 같이 반홀소리에는 반달 표를 달았고,
- ㉢ 주시경과 김두봉이 써 오던 첫소리 ‘ㅇ’은 최현배 설과 같이 안 쓰고, 받침 ‘ㅇ’ 대신에 첫소리 풀 ‘ㅇ’으로써 받침에서 쓰게 했다.

10) 옥치정의 ‘가로쓰기 새 교본’

‘한글’ 제13권 제2호(통권 104호, 1948. 6. 20.) 63~64쪽에 “옥치정 지은 ‘가로쓰기 새 교본’을 읽고”라는 제목의 정태진의 신간 소개의 글이 실렸다.

(4) 가로 풀어쓰기 단체

‘한글’ 제11권 제3호(1946. 6. 7.)에 ‘한글 신문’이라고 한 소식 난에 ‘한글 가로쓰기 좌담회’를 열었다고 보도하였다. 내용인즉, 5월 19일(공일) 경성 중학교 강당에서, 여러 유지가 모였었다. 이 좌담회 결과로 ‘한글 가로쓰기회’가 창립되었고, 회장에는 외솔 최현배가 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김윤경과 최현배가 작고한 뒤에, 1971년 10월에 한글 학회 회원들 중 가로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글 풀어쓰기 연구회’를 발기하였으니, 곧 창립 회의를 가지기로 되었는데, 그 주동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가나다 차례)과 같다.

- 금수현, 문효근, 박만규, 박병호, 박장대, 옥치정, 유제한, 이승화,
 - 이용호, 조병희, 정재도, 최창식, 최철해, 허 응
- 을 비롯하여, 이 밖에 한글 학회 회원이 아닌 이로는 다음과 같다.
- 문익환(한국 신학대학 교수), 장봉선(한글 과학 전자화 연구 소장),
 - 조상연(현암사 사장)